

한국BASF, 찬성 70%로 파업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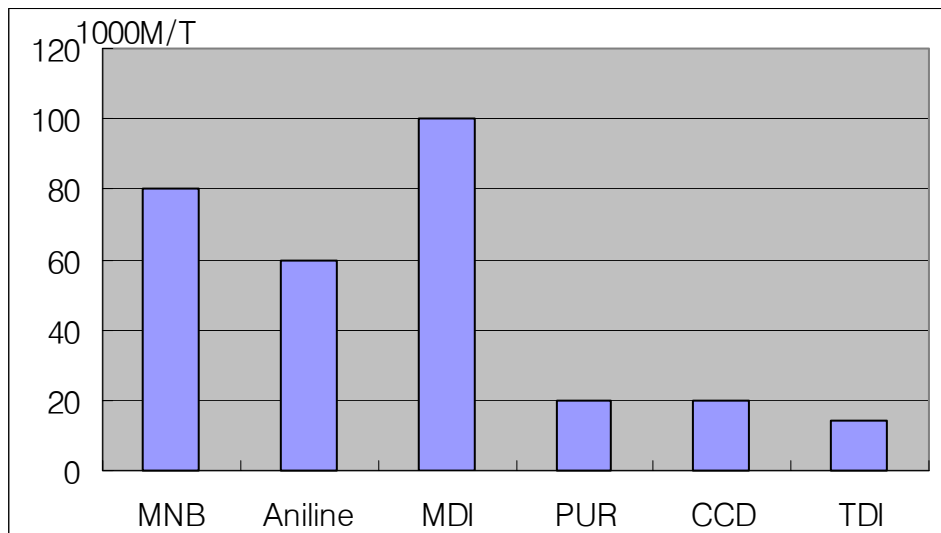
여수공동투쟁본부 3대 요구사항 포함 ... 7월8일 쟁의행위 신고·접수

한국BASF 노동조합(위원장 김현열)이 7월7일 실시한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자 227명 중 162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.

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7월8일 오전에 쟁의행위신고 접수를 완료했다.

노동조합은 여수지역노조 공동투쟁안인 ▷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▷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▷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3가지에 ▷의료비 지급방법 개선 ▷성과급 지급의 명문화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.

한국BASF 여수공장의 생산능력(2003)



한국BASF는 여수공장 노조의 파업으로 당분간 MDI, TDI, Aniline, MNB 생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7/12>